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이대진 “이젠 노련미로 던진다”

‘노장 투수 이대진의 끝나지 않는 도전’

빛방울이 돌아치던 지난 4일 무등경기장에서는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펼쳐졌다. 선발 이대진(사진)은 이날 승리 투수가 됐지만, 고의 실책과 삼진 등이 난무한 어수선한 경기장과 2회 터진 장성호의 만루홈런에 빛속의 역투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날 16년차 베테랑 이대진은 6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키며 6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리고 25일 만에 2승을 신고했다. 통산 94승째, 100승에 6승이 부족하다.

이대진은 1998년 5월 14일 150km에 육박하는 ‘돌직구’와 낙차 큰 커브를 내세워 ‘10타자 연속 삼진’이라는 프로야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다. 17승 6패로 1997년 골든 글러브, 1995·1998년 탈삼진 1위 등 이대진은 90년대 말 프로야구 마운드를 평정하면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에이스 이대진은 2000년 어깨 수술을 받은 후



4일 한화전 쾌투 시즌 2승

직구보다 커브로 승부

통산 100승에 6승 남아

2003, 2004, 2006년 8경기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 치며 지나간 재할의 시간을 보냈다.

10년 전 경이로운 탈삼진 행진을 선보였던 이대진은 4일 경기에서는 5개의 탈삼진을 거두는데 만족해야 했다.

150km에 육박하던 직구 최고 구속은 134km에 불과했다. 하지만, 낙차 큰 커브의 위력은 여전했다.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 등을 적절히 섞어 타자의 타이밍을 뺏았다.

날카로운 대신 목직한 노련미를 더한 이대진의 진가는 이날 유감없이 발휘됐다. 5회를 넘기려는 KIA와 이를 막으려는 한화의 추태가 계속되는 동안 마

운드의 이대진은 묵묵히 프로답게 선발 역할에 충신했다.

픽 모션을 조금 빨리 가져갈 뿐 끝수는 없었다. 농장을 부리는 한화 타선에 과감히 승부를 걸며 에이스의 위용을 과시했다.

지난달 11일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이대진은 3회까지 우리 타선을 삼자범퇴로 막으며 등 5이닝 동안 3피안타로 1실점 하며 시즌 첫승을 챙겼다.

4전 5기만에 얻은 소중한 1승이었다.

이후 이대진은 3경기에 나서 17과 3분의 1이닝 동안 ‘16피안타 8탈삼진으로 4.15의 평균자책점을 보이며 KIA마운드를 지켰지만 3경기 모두 패전 투수가 됐다. 이중 2경기에서는 퀄리티 스타트까지 기록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은 4점에 불과해, 불운의 에이스라는 호칭이 붙었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선 이대진의 성적은 2승6패로 승보다 패가 더 많다. 하지만, 성실하게 프로임을 잊지 않는 노장의 통산 100승, 팀의 4강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진 프로 통산 성적

년도	평균자책	승	패	세
1993	3.11	10	5	2
1994	4.20	7	8	3
1995	2.57	14	6	0
1996	2.37	16	8	3
1997	3.14	17	6	1
1998	3.26	12	11	0
1999	2.45	0	0	0
2000	3.17	8	6	13
2003	9.45	1	1	0
2004	10.57	0	1	0
2006	18.00	0	0	0
2007	4.11	7	6	0
2008	3.64	2	6	0
통산	3.30	94	64	22

KIA 새 용병투수 디아즈 영입

몸값 16만5천 달러

2004년 ML서 2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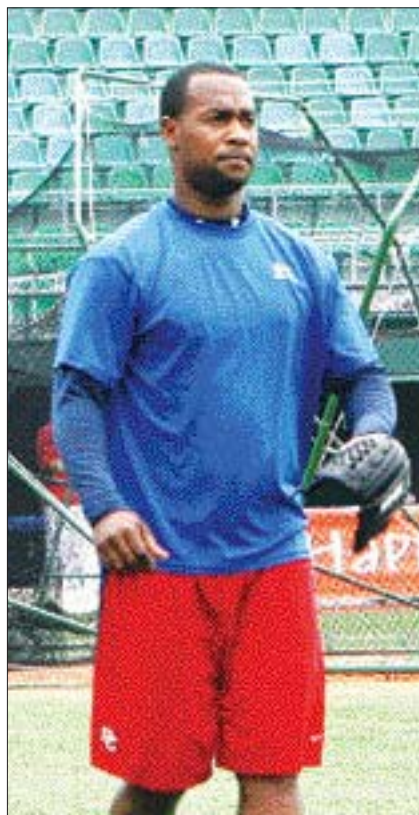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새로운 용병이 가세했다.

KIA는 5일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켈릭 디아즈(28·사진)와 16만 5천 달러(계약금 3만 5천 달러 포함)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일 새벽 한국에 입국했던 디아즈는 4일 무등경기장에서 피칭을 한 뒤 구단 지정병원인 광주 한국병원에서 메디컬 체크를 받았었다.

디아즈는 이날 피칭에서 145km의 직구 최고 구속을 기록했고, 슬라이더가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팔꿈치 부상으로 재할을 해왔던 디아즈는 메디컬 체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공식으로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우완 정통파인 디아즈는 지난 2000년 미 프로야구에 진출한 후 2004년 메이저 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18경기에 등판해 6.75의 평균 자책점으로 2승 5패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총 153경기에 등판해 44승 44패 4.22의 평균 자책점을 보였다.



디아즈는 2006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에서 8경기에 등판해 3승 5패 방어율 4.91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야구 경험도 가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편법 승부’ KIA·한화 ‘경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4일 광주 KIA-한화전에서 양 팀이 일부러 경기 시간을 늘이거나 줄이려고 한 데 대해 양 구단에 엄중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경기에서 KIA가 6-1로 앞선 가운데 빔볼기가 끊어지자 한화 선수들이 5회

전 경기취소(노게임)를 노리고 일부러 수비 실책을 저지르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KIA 타자들은 5회 강우-폴드게임을 의식한 듯 일부러 3구 삼진을 당하는 등 성의 없는 플레이를 펼쳐 관중의 비난을 받았다.

롯데 현충일 이벤트

군복 유니폼 입고 댄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현충일인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 홈경기에서 군복 디자인을 접목한 유니폼을 공개한다.(사진)

이에 따라 롯데 선수들은 얼룩무늬로 만들어진 윗옷과 모자를 입고 경기에 나선다. 모자에는 예비군 마크 대신에 롯데 로고가 들어간다. 롯데 관계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새 유니폼을 마련했다”며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군복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는 것은 롯데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찬호 30이닝 6K

박찬호(35·LA 다저스)가 6월 첫 등판에서 30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

내는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박찬호는 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 0-2로 뒤진 6회초 선발 클레이튼 쿠소를 구원 등판, 30이닝을 삼진 6개를 걸어들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투구수 48개 중 스트라이크 32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을 만큼 자신감 넘친 피칭 내용을 보인 박찬호는 평균자책점을 2.21(종전 2.41)로 떨어뜨렸다. 박찬호는 등판하자마자 개럿 앳킨스와 크리스 아리아네타, 제프 베이커를 공 12개만으로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순조롭게 출발했다.

박찬호는 1-2로 뒤진 9회초 콜로라도 마지막 공격에서 조 바이벨에게 공을 넘겼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페더러 4강 진출

프랑스 오픈 테니스 男단식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가 생애 첫 프랑스오픈 우승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했다.

페더러는 5일(한국시간)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 11일째 남자단식 8강전에서 페르난도 곤살레스(25위·칠레)에 3-1(2-6 6-2 6-3 6-4) 역전승을 거뒀다. 2004년 워싱턴 우승을 시작으로 그랜드슬램대회 16회 연속 4강에 오른 페더러는 시드를 받지 못한 가엘 몽피스(50·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몽피스는 다비드 페레르(5위·스페인)를 3-1(6-3 3-6 6-3 6-1)로 제치고 4강에 진출했다. 프랑스 선수가 이 대회 남자단식 4강에 나간 것은 2001년 세바스티앙 그로장 이후 7년만이다.

여자단식에서는 세계 1위 마리아 샤라포바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극을 펼쳤던 디나라 사피나(14위)가 또 한 번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엘레나 데멘티예바(8위·이상 러시아)를 상대로 한 8강전에서 사피나는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도 게임스코어 2-5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이후 내리 4게임을 따내며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간 끝에 세트스코어 1-1을 만든 사피나는 여세를 몰아 3세트를 6-0으로 끝내 2-1(4-6 7-6(5) 6-0)로 이겼다.

“아깝다! 한국新 넘을 수 있었는데”

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최윤희(원광대)가 한국신기록(4m11)을 경신하기 위해 4m15를 뛰어넘다 바를 건드리고 있다.

/연합뉴스